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5월 16일(수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신용민 서기관(4900) 에너지절약정책과 나기용 과장(2110-4872), 김정대 서기관(4873)	

산업계 자율적인 동참과 전국민의 절전 생활화를 통해 금년도 하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

-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6월1일부터 조기시행-

□ 금년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참하는 전력 수급대책을 수립, 시행할 계획

□ 전력 피크수요의 50%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계는 자발적인 휴가기간 분산, 조업시간 조정, 자가 발전기 가동 등의 절전대책에 참여

○ 휴가 분산은 8월초에 집중된 휴가를 8월 중순이후로 분산함으로써 예비전력이 부족한 8월말의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

- 철강*(국내 전력소비량 9.6% 점유), 주물, 시멘트 등 휴가나 정비일정 조정이 가능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

* 포스코·현대제철 등 주요업체가 8월 3~4주 정비·보수실시 ⇒ 100만kW 감축

○ 조업시간 조정은 산업체가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실시할 경우 전력 절감량에 비례하여 인센티브(1,020원/kwh)를 지급하는 제도로서,

- 철강, 시멘트, 제지, 금속, 섬유 등 대부분의 업종이 참여할 예정

○ 조업 특성상 휴가 분산이나 조업 조정이 어려운 정유,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피크시간대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

* 산업체중 가장 큰 자가발전기(33만kW)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도 참여 예정

○ 산업체 협조를 통해 확보되는 예비전력은 400만kW(휴가·조업조정 300만, 자가발전기 100만) 수준으로 이는 원자력 4기의 발전량에 해당

□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(전력피크의 21% 차지)를 억제하기 위해 全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

○ 백화점, 호텔 등 478개소(2,000TOE 이상)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℃로 제한

○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(유통업체, 프랜차이즈, 의류 등 소매업종, 은행 등 금융기관)은 "자율절전 사회적 협약"을 통해 절전 동참을 유도

-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냉방기 사용실태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절전사이트(www.powersave.or.kr)에 게재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표

○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

* 과태료 부과 대상, 시기는 5월말까지 확정, 일정기간의 계도를 거쳐 시행

○ 시민단체 절전운동,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 등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

□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19,000개소에 대해 전년대비 5%에 해당하는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

○ 냉방온도는 28℃로 제한하고, 피크시간(14~17시)에는 지역을 2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냉방기를 30분씩 순차로 중단하는 한편,

○ 에너지절약형 의류 입기(휘들옷) 및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도 추진하고,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

○ 국무회의시에도 상의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 복장 간소화

□ 금년 하절기 전력수급 상황을 전망하면,

○ 하절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8월 3~4주간은 150만kW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

□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에 적극 동참하여, 절전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예비전력은 500만kW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

대책前 예비전력	150만kW
공급 확충	민간 자가 발전기 가동 : +100만kW
수요 관리	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: +300만kW 냉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 : +100만kW
대책後 목표 예비전력	500만kW

□ 예측치 못한 발전소 공급차질 및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,

○ 3단계의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총 340만kW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전력수요 감축량을 확보해나갈 계획

단 계	조 치 (효 과)
(관 심) 400 ~ 300kW	전압 조정 #1 (100만kW)
(주 의) 300 ~ 200kW	전압 조정 #2 (40만kW)
	직접부하 제어 (100만kW)
(경 계) 200 ~ 100kW	긴 급 절 전 (100만kW)
계 : 340만kW	

□ 금년에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발전소 공급 차질로 5월초부터 예비전력이 400~500만kW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력수급이 빠듯한 상황을 감안하여,

○ "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"을 예년보다 빠른 오는 6.1(금)부터 9.21(금)까지로 설정하는 한편,

○ 지경부, 한전, 발전회사 등 전력당국은 "전력수급 비상상황실"을 운영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.

□ 정부는 금일 5.16(수)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지식경제부, 환경부 등 10개 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상과 같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확정하였음

○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한전, 전력거래소, 발전 6사, 에너지관리공단, 전기안전공사, 한전KPS 등이 참여한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절기 차질없는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와 적극적인 절전시책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, 하계 대책기간중 비상근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음.

붙 임 : '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